

## 2018년 12월 2일 “복음의 여정(9)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갈 5:19-24)

### <도입>

Amy Chua는 “제국의 미래”에서 역사 속에서 성공한 제국들의 공통적 특징은 **관용(tolerance)**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힘으로 지키고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겠습니다.

### [1]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성도의 힘

22 절.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영어 번역과 대비해 보세요)  
거듭나면 즉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축복을 얻습니다. 그렇다고 거듭날 때 삶과 성품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거듭남과 동시에 사랑 ~ 절제의 관계성의 성품을 위해 애써야 하는 긴 과정과 훈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관계의 축복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무용해지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로 표현합니다(21 절, 참고 엡 5:5).

또한 성품의 성숙이 없으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관계가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성품’의 국어사전 뜻은 성질이나 됨됨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됨됨이를 관심있게 지켜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상대평가 하시지 않고 당신과 동행하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냐고 물으십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성령의 열매는 9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대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성도의 됨됨이에 관해 말할 때, ‘나’를 이루는 요소들이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적 성품의 중요성을 공동체적 차원에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 [2] 관계의 성장을 위한 성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필수 요소는 말씀 묵상, 기도, 예배, 친교, 섬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공동체에 몸담고 갖게 되는 고민은, 개인마다 나름 길러진 자질을 가지고 신앙으로 애쓰며 사는 것 같은데, 관계는 성숙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만남과 대화(관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공감하며 소통하고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경청과 친절과 배려가 중요합니다. 논리적 설득력, 또는 관철하려는 의지는 관계성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의도와 뜻에 관심이 없으면, 이내 따지듯이 말하게 되고 화도 냅니다. 그러면 서로 상처를 종종 받게 됩니다. 결국 서로에게서 유익을 못 얻고, 관계가 자라지 않습니다.

만남과 대화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자비, 양선, 충성, 즉 친절함, 배려, 품어 줌, 경청의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지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마치 최상품 엔진이지만 엔진 윤활유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윤활유 없이 엔진이 돌아가면 아무리 좋은 엔진이라도 이내 타버리고 망가집니다. 우리의 관계적 성품이 성숙하지 못하면 개인적 자질과 실력이 뛰어나도 곧 타고, 상합니다.

물론 사람의 관계가 성숙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성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과 성장하지 않고 미숙한 관계에 머무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 [3] 예수님의 성품을 사랑하고 따르고 싶습니까?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어떤 성품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믿고 사랑합니까? 그분을 사랑한다면 내게 보여주시는 관계적 성품을 발견/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기적, 치유, 십자가, ... 등은 객관적 사실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깊이 알아 주시며, 얼마나 친절하시고, 정죄하시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는 인격적 관계 맺음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생활은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하며 그분의 성품을 배우기 위해 묵상, 기도, 예배, 교제, 섬김에 나를 헌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적 사고와 실력의 수준보다 예수님께 배우는 관계적이고 감정적인 교통과 공감의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친절하고 배려하며 경청하는 자세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4:1**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기쁨과 사랑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두 성도에게 부탁드립니다. **4:2**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관계적 공감대를 가져 달라는 뜻이죠.

**2:3**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한(같은) 마음은 나의 고유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연습니다. **2:5**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맺음>**

공동체 안에서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서 관계적인 교통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친절하십시오. 경청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고유의 마음으로는 아닌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을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나눔의 질문>** (정답은 찾지 않아도 됩니다. 정직한 나눔 만이 영적 자산으로 남습니다.)

1. 자신 또는 주위에서 성령의 열매(22 절)에 관한 체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2. 나와 공동체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3.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한 나의 결단은 무엇입니까?